

노인들의 의치 장착 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대학 치기공과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재료학교실*

이 인 규, 송 윤 희*

=Abstract=

A Patient's Satisfaction with Denture in the Old People

In-Kyu Lee, Yun-hee Song*

*Dept. of Dental Technology, Wonkwang Public Health Junior College
Dept. of Dental Biomaterials,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This experiment was to find out the complacency of wearing dentures and the linkage to the quality of life style of oldsters 60 years old and over. 122 numbers of oldsters who came to aid to the health center were put to survey. This was taken place within the areas of Deajun, Koonsan, Mooju and Jinahn , thus procured the following result.

1. The length of edentulous period of 1-6years of oldsters aged around 60s showed 26.0%. The oldsters with edentulous period of over 7years aged in the 70s showed 26.1% and 56.0% on oldsters aged in the 80s. This shows that as the age increases the edentulous period lengthens. (P <0.05)

The length of time of using the denture shows, 11years or over on women 41.9%, less than 6years on men 71.4% as the highest rate. 11years or over on towns/subcounty show 57.5%, small and medium cities more than 1year 63.6%, less than six years also 63.6% and Kwangyuk city 47.6%.

2. The complacency on medical treatment of dentures was highest in Kwangyuk city of 61.3%,

* 본 논문은 2001년도 원광보건대학 학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 · 성명: 이 인 규 · 전 화: 063-840-1242 · E-mail: iklee@sky.wkhc.ac.kr
저자 · 주 소: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보건대학 치과기공과 연구실

compared to towns/subcounty of 50.8% and small and medium cities of 33.3%. ($P < 0.05$)

3. The complacency on mastication and pronunciation appears, 2.74% in Kwangyuk city, 3.10% in towns/ subcounty which is higher than the small and medium cities showing 1.09% on average. Satisfaction rate tends to be higher as the length of time of using the denture is longer.

4. Inconvenience on eating habits caused by dentures were felt by women.

Wanting to get a new denture was 25.6% by women showing much higher rate than that of men which is 2.8% by men. ($P < 0.05$)

5. The complacency of change in their life style after wearing the dentures were higher in Kwangyuk city of 64.5% whereas it showed 27.0% in towns/ subcounty and 16.7% in small and medium cities. ($P < 0.05$)

* Key Words : dentures, patient's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1. 서 론

최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은 1971년 남자 59.0세, 여자 66.1세이던 것이 25여년 후인 1997년에는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늘어났으며(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이는 의료 기술 발달 및 199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의료 보험 실시 등에 따른 현상으로 우리 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인기란 생의 마지막 단계로써 신체 기능 및 자아 적응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모든 기본적 욕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노인 협회 가입 연령을 60세로부터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 보호법 제 3조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Kim, 1980, Kim, 1986).

그러나 노화란 인생의 후반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정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써 특히 생리적인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Lee, 1985).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는 죽음 직전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생명 유지 행위이므로 치아의 유·무 상태는 소화 기관의 건강과 함께 생명 유지와 연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년에 이룰수록 자연치의 상실의 많아지고 의치 장착의 비율은 높아지므로 의치 장착 후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착용 중인 의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심미적 용도에만 국한시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Bates & Murphy, 1968).

최근 새로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치료 방식에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노인 환자의 치료 계획에는 부분 및 전체 의치(partial & full denture)가 우선 고려된다. 이 때 술자의 기

술적이며 임상적인 일정 수준이 충족되면 성공적인 수복물로 생각되기 쉬우나 마지막 성공 여부는 환자의 만족도에 의해 평가되므로(Kim et al., 1995) 가령(加齡)과 더불어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노인 환자에 있어 구강내 의치 장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의치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의치의 질과 그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것이 주로 많은데 Carlsson 등(1967)은 환자의 의치에 대한 평가와 술자의 평가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Northeim과 Valderhag(1979)는 환자의 의치에 대한 만족도와 환자의 연령, 수입, 사회적 위치 등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Yoshizumi(1964)는 환자의 연령, 수입, 사회적 위치 등과 의치에 대한 만족 여부와는 명백한 관련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고 Langer 등(1969)은 의치에 대한 만족도는 술자의 개인적 견해 및 능숙한 술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Einar(1984), Heyink(1986), Magnuson(1986) 등은 의치에 대한 만족도는 술자의 견해 및 술식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들에 나타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노인들의 의치 장착 전·후의 저작 효과와 음식물 섭취 가능량, 만족도 등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건강 상태 및 보철 치료 전·후의 포괄적인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이 요인들과 노인들의 의치 장착 전·후의 만족도, 삶의 질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II.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으로 구분하여 대전, 군산, 무주 및 진안 지역 보건소에 내원한 노인 환자와 무료 의치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배부 총 조사 대상자는 122명으로 남자 37명, 여자 85명이었다.

2. 조사방법

1) 방법 및 항목

조사 방법은 개별 자기법에 의한 설문 조사법이었으나 정확한 응답을 고려하여 훈련된 검사자의 질문에 의한 설문 조사였으며 조사 항목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결혼 유·무 및 최종 직업 등 일반적 특성과 무치악 기간과 의치 사용 기간, 의치 장착 후의 저작 및 발음에 관한 상관성, 의치 장착 후의 식생활과의 관련성, 삶의 질의 변화 등 포괄적인 의치 만족에 관한 17개 항목이었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에 의해 의치 만족도에 관계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상관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에 의한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검정 방법은 ANOVA, T-test, χ^2 -test로 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총 122명 중 남자 37명(30.3%), 여자 85명(69.7%)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 분포는 60세 이상 69세 사이가 41.0%로 가장 많았다.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응답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6.5%가 아주 좋다, 26.0%가 좋다, 35.0%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만성 및 신체 질환 유·무에서는 58.9%의 응답자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장착 개시 연령은 60세~69세 사이가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1>.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 항	내 용	인원(명) / 빈도(%)	문 항	내 용	인원(명) / 빈도(%)
성 별	남	37(30.3%)	의치 장착 개시 연령	20~29세	1(0.8%)
	여	85(69.7%)		30~39세	1(0.8%)
연 령	60~69세	50(41.0%)		40~49세	9(7.4%)
	70~79세	47(38.5%)		50~59세	39(32.0%)
	80세 이상	25(20.5%)		60~69세	52(42.6%)
건강상태	아주 좋다	8(6.6%)	70~79세	17(13.9%)	
	좋다	32(26.2%)	80~89세	3(2.5%)	
	보통이다	43(35.2%)	지 역 별	광 역 시	61(50.0%)
	약간 나쁘다	31(25.4%)		중소도시	30(24.6%)
	아주 나쁘다	8(6.6%)		읍·면	31(25.4%)
만성 및 신체질환 유무	있다	73(59.8%)	Total	122명	
	없다	49(40.2%)			

2. 포괄적인 의치 만족도

1) 무치악 및 의치 사용 기간

무치악은 아니지만 잔존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경우 성별 분포에서 남·녀 각각 62.2, 46.5%로 비교적 잔존 치아 존재률이 높았으며, 무치악 기간은 60대에서는 1~6년 사이가 26.0%, 70대는 7년 이상이 26.1%, 8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7년 이상이 5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4).

지역별 분류에서는 읍·면 지역이 58.1%로 중소도시 56.7%, 광역시 32.3%에 비해 잔존 치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무치악 기간

		무 치 악 기 간			χ^2	p
		진존 치아가 있다	1~6년	7년 이상		
성 별	남	23(62.2%)	9(24.3%)	5(13.5%)	5.140	0.077
	여	40(46.5%)	17(20.2%)	28(33.3%)		
연 령	60~69세	30(60.0%)	13(26.0%)	7(14.0%)	15.192	0.004
	70~79세	25(54.3%)	9(19.6%)	12(26.1%)		
	80세이상	7(28.0%)	4(16.0%)	7(56.0%)		
지 역	읍·면	36(58.1%)	9(14.5%)	17(27.4%)	7.681	0.104
	중소도시	17(56.7%)	6(20.0%)	7(23.3%)		
	광역시	10(32.3%)	11(35.5%)	10(32.3%)		

의치 사용 기간은 남성의 경우 6년 미만인 경우가 71.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11년 이상 의치를 사용한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1년이상 의치를 착용한 연령이 전체 84.1%로 70세 이상의 연령이 여

기에 속하였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읍·면에서는 11년 이상이 57.5%로 나타나 장기 사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 도시 지역에서는 1년 이상 6년 미만이 각각 63.6, 47.6%로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23, 0.011)<표 3>.

표 3. 의치 사용 기간

		의치 사용 기간			χ^2	p
		1~6년	7~10년	11년 이상		
성 별	남	10(71.4%)	2(14.3%)	2(14.3%)	7.529	0.023
	여	13(30.2%)	12(27.3%)	18(41.9%)		
연 령	60~69세	11(59.7%)	4(21.2%)	4(21.1%)	4.080	0.395
	70~79세	7(33.3%)	5(23.8%)	9(42.9%)		
	80세이상	5(29.4%)	5(29.4%)	7(41.2%)		
지 역	읍·면	37(26.9%)	4(15.4%)	15(57.5%)	13.054	0.011
	중소도시	7(63.6%)	4(36.4%)			
	광역시	10(47.6%)	6(28.6%)	5(23.8%)		

2) 의치 장착 후의 만족도
 의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각각 만족한다 54.1%, 47.1%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60~69세 48.0%, 70~79세 51.1%, 80세 이상 48.0%로 연령별 유의성이 없었고, 지역별 분포에서 광역시의 경우

가 61.3%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 50.8%,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 중소도시 33.3%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2) <표 4>. 서는 불만을도 30.2%를 나타내 타지역에 비해

표 4. 의치 치료에 대한 만족도

		의치 치료에 대한 만족도			χ^2	p
		만족	보통	불만		
성 별	남	20(54.1%)	14(37.8%)	3(8.1%)	5.218	0.074
	여	40(47.1%)	23(27.1%)	22(25.9%)		
연 령	60~69세	24(48.0%)	14(28.0%)	12(24.0%)	0.786	0.940
	70~79세	24(51.1%)	15(31.9%)	8(17.0%)		
	80세이상	12(48.0%)	8(32.0%)	5(20.0%)		
지 역	읍·면	32(50.8%)	12(19.0%)	19(30.2%)	17.026	0.002
	중소도시	10(33.3%)	16(53.3%)	4(13.3%)		
	광역시	19(61.3%)	10(32.3%)	2(6.5%)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치에 대한 만족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남·녀 모두 불만족 요인으로 가격이 너무 비쌌다, 심미적으로 는 마음에 들지만 저작 및 말하기가 불편하였다 가 각각 82.9, 84.8%를 차지하였고 연령별, 지역 별 분포에서도 같은 불만족 요인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5>.

표 5.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치에 대한 불만족 요인

		의치 치료에 대한 만족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기대만큼의 자연스러움0 없다	심비적으로 양호하나 시작, 말하기가 불편함	너무 아파서 착용하기 불편	안정상태 불량으로 저작시 의치의 흔들림
성 별	남	15(42.9%)	14(37.8%)	14(40.0%)	4(11.4%)	6(17.1%)
	여	33(41.8%)	23(27.1%)	34(43.0%)	19(24.1%)	17(21.5%)
연 령	60-69세	20(41.7%)	14(28.0%)	20(41.7%)	7(14.6%)	8(16.7%)
	70-79세	18(45.0%)	15(31.9%)	19(47.5%)	12(30.0%)	10(25.0%)
	80세이상	10(41.7%)	8(32.0%)	9(37.5%)	4(16.7%)	5(20.8%)
지 역	읍·면	15(26.8%)	12(19.0%)	29(51.8%)	12(21.4%)	15(26.8%)
	중소도시	20(71.4%)	16(53.3%)	12(42.9%)	5(17.9%)	5(17.9%)
	광역시	13(43.3%)	10(32.3%)	7(23.3%)	6(20.0%)	3(10.0%)

3) 저작 및 발음에 관한 상관성

저작 및 발음에 대한 각 항목별(5항목) 분석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양호 1점, 불량 0점으로 처리하여 0~5점으로 만족도의 척도로 삼았다.

각각 성별, 연령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지역 및 의치 착용 기간에 따른 저작 만족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0, 0.021$) <표 6, 7>.

표 6. 성별에 따른 저작 및 발음

	남	여	T	P
	mean(±SD)	mean(±SD)		
저작	2.68(±1.31)	2.74(±1.43)	-0.218	0.828
발음	4.19(±1.49)	3.87(±1.40)	1.133	0.260

표 7. 연령에 따른 저작 및 발음

	60~69세	70~79세	80~89세	F	P
	mean(±SD)	mean(±SD)	mean(±SD)		
저작	2.86(±1.37)	2.60(±1.48)	2.60(±1.26)	0.524	0.593
발음	3.94(±1.43)	3.76(±1.55)	3.97(±1.18)	1.234	0.295

지역에 따른 저작 만족도에서 광역시, 읍·면 지역의 ($m=2.74, 3.10$) 만족도가 중소도시 ($m=1.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치 기간에 따

른 분석에서는 11년 이상 착용한 환자가 ($m=3.40$) 6년 미만 착용한 환자($m=2.29$)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 9>.

표 8. 지역에 따른 저작 및 발음

	읍·면	중소도시	광역시	F	P
	mean(±SD)	mean(±SD)	mean(±SD)		
저작	3.10(±1.34) ^B	1.90(±1.42) ^A	2.74(±1.15) ^B	8.369	0.000
발음	3.86(±1.32)	3.76(±1.79)	4.39(±1.23)	1.854	0.161

※ Tukey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9. 의치 사용기간

	1~6년	7~10년	11년이상	F	P
	mean(±SD) ^A	mean(±SD) ^{AB}	mean(±SD) ^B		
저 작	2.29(±1.27) ^A	2.36(±1.39) ^{AB}	3.40(±1.47) ^B	4.124	0.021
발 음	3.63(±1.64)	3.93(±1.69)	4.20(±1.20)	0.793	0.458

* Tukey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의치장착과 식생활의 관련성
 의치로 인한 식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다소 불편함을 각각 62.2%, 46.5%로 응답하였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착용하기 싫다 12.8%, 새로운 의치를 착용하고 싶다 12.8%

로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0) 연령별, 지역별 분포에서도 의치로 인한 식생활의 불편감 호소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10).

표 10. 의치로 인한 식생활의 불편함

		의치로 인한 식생활의 불편함					χ ²	p
		매우만족	다소불편	매우불편	착용하기 싫음	새로운 의치 착용하고 싶음		
성별	남	6(16.2%)	23(62.2%)	7(18.9%)	11(12.8)	1(2.7%)	10.713	0.030
	여	16(18.6%)	40(46.5%)	8(9.3%)		11(12.8%)		
연령	60~69세	5(10.2%)	27(55.1%)	3(12.2%)	6(12.2%)	5(10.2%)	6.411	0.601
	70~79세	12(25.5%)	22(46.8%)	6(12.8%)	4(8.5%)	3(6.4%)		
	80세이상	4(16.0%)	13(52.0%)	3(12.0%)	1(4.0%)	4(16.0%)		
지역	읍·면	14(22.6%)	25(40.3%)	5(8.1%)	8(12.9%)	10(16.1%)	18.324	0.019
	중소도시	2(6.7%)	20(66.7%)	7(23.3%)	1(3.3%)			
	광역시	6(19.4%)	18(58.1%)	3(9.7%)	2(6.5%)	2(6.5%)		

5) 의치 장착후 삶의 질 변화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서는 여성 58.8%로 남성에 비해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지역별 분포에서 관련 있음이 광역시 80.6%, 중소도시 50.0%로 매우 관련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0.000) <표11>.

표 11.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질과 관련성			χ^2	p
		관련 있음	보통	관련 없음		
성 별	남	22(59.5%)	9(24.3%)	6(16.2%)	0.856	0.652
	여	50(58.8%)	16(18.8%)	19(22.4%)		
연 령	60-69세	31(62.0%)	8(16.0%)	1(22.0%)	4.300	0.367
	70-79세	24(51.1%)	11(23.4%)	12(25.5%)		
	80세 이상	17(68.0%)	6(34.0%)	32(8.0%)		
지 역	읍·면	34(54.0%)	8(12.7%)	21(33.3%)	22.313	0.000
	중소도시	15(50.0%)	12(40.0%)	3(10.0%)		
	광역시	25(80.6%)	5(16.1%)	1(3.2%)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 서는 남·녀 모두 불만족 보다는 만족스럽다는 견해가 전체 86.5, 86.2%로 나타났고, 각 연령별 분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별 분

포에서는 만족스럽게 변화되었음이 광역 시에서 64.5%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스 러움은 중소 도시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0) <표 12>.

표 12.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변화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변화			χ^2	p
		만족스럽게 변화됨	보통	불만족스러움		
성 별	남	11(29.7%)	21(56.8%)	5(13.5%)	0.458	0.795
	여	31(35.6%)	44(50.6%)	12(13.8%)		
연 령	60-69세	10(20.0%)	33(66.0%)	7(14.0%)	7.127	0.129
	70-79세	19(40.4%)	22(46.8%)	6(12.8%)		
	80세 이상	11(44.0%)	10(40.0%)	4(16.0%)		
지 역	읍·면	17(27.0%)	38(60.3%)	8(12.7%)	24.654	0.000
	중소도시	5(16.7%)	16(5.3%)	9(30.3%)		
	광역시	20(64.5%)	11(35.5%)			

IV. 고 찰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행복(happiness), 복지(welfare)등의 개념과 유사하나 각자의 주관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인간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과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다면적(multifaceted)이고 포괄적(comprehensive)인 개념이다(Kim, 1980).

따라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삶의 질 문제는 그들의 생활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는 것과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평가된다.

이러한 삶의 만족 추구는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다 포괄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데(Choi, 1995), 특히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강한 노년기에 있어서 의치에 대한 만족도는 단순히 심미성이나 저작 기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장착 후 삶의 질적인 문제까지도 확장시켜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치 만족에 관한 사항은 의치의 질, 환자의 구강 상태, 환자의 심리 상태, 환자와 술자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 성별, 연령, 적응 기간,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치 만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장착 후 의치 만족도와 그와 관련된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연장하여 생각하였다.

Boucher 등(1975)과 Brill 등(1960)은 환자의 연령과 의치에 대한 수용 정도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Makila(1974)의 연구에서는 65세 이하 환자들이 65세 이상 보다 의치를 더 잘 수용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그 밖의 연구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였

다(Norheim & Valderhag, 1979; Manderson & Ettinger, 1975; Guckes et al., 1989; Sheppard et al., 1972).

본 연구에서도 연령과 성별에서는 의치 수용에 따른 만족도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지역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즉, 광역시 거주 노인들의 만족도가 19(6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32(50.8%)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대했던 의치 만족도,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 여부, 의치 장착 후 삶의 변화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하여 읍·면 지역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질 대적 수 부족과 지역간 사회 문화적 혜택, 생활 수준 등의 편차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Sheppard 등(1972)은 환자의 의치 장착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증대한다고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11년 이상 착용(m=3.40)한 환자가 6년 미만(m=2.29) 동안 착용한 환자보다 의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의치에 대한 적응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Seifert 등(1962)은 의치 장착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이전에 착용했던 의치에 대한 경험과 의치의 만족도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고, Wass(1990)는 무치악 기간과 의치 사용 기간이 증가될수록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Einar(1984)의 연구에서는 특별한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무치악 기간에 따른 의치의 만족도 간에는 특별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의치 장착 후 환자의 저작 능력 및 발음 향상 등은 의치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저작 만족도는 구강 조직 건강도에 의존 경향이 많으나 연령 증가와 함께 잔존 치조부도 많이 되축되므로(Dorey, 1985) 점막의 건강, 타액의 분비, 근육의 긴장 등 전신적인 건강 조건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Kim, 1986). 이밖에 해부학적 및 기능적 관계에서 연조직의 두께와 건강도, 혀의 크기와 모양, 타액의 성질 등이 구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Appleby & Ludwig, 1970; Beserin & Schiesser, 1973; McCartney, 1981).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히 만들어진 의치인 경우라도 환자가 완전히 만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의치 장착 후의 편안함, 심미성 등이 따라야만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Manderson & Ettinger, 197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질이 나쁜 의치에도 환자는 충분히 적응하여 만족한다 라고 하였고(Grabowski & Bertram, 1975, Dorey, 1985), 발음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부분 의치 장착 초기에는 달라진 구강 환경에 따라 구역질이나 발음 곤란 등의 불만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는 그들의 의치에 익숙해진다고 보고하였다(Tanaka, 1973; Petrovic, 1985). 본 연구에서도 장착 기간이 길수록 저작 및 발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달라진 구강 환경에 환자가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Silverman(1976)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고 일의 수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

며 주위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의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Massler(1951)는 여성은 폐경기 후 생리적으로 매우 민감하므로 의치 수용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의치 장착 그 자체를 여성은 더 민감하게 느낀다 라고 보고했다(Dorey, 1985). 본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의치로 인한 식생활에 불편함을 더 느끼며 새로운 의치를 착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보고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의치 장착 후 삶의 질 변화에서는 장착 후 심리적, 심미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의치 장착 후 삶의 질 변화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삶의 변화도가 높다고 나타난 것은 단순히 저작 및 발음에 대한 만족도인 기능에만 국한지어 생각되기 보다 의치 장착으로 인한 건강 유지와 자신감 회복, 그에 따른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생활의 활력소로 자리할 수 있으므로 의치 장착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의치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무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만족도'는 수치로 변할 수 있는 환자의 느낌과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추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Gordon, 1991).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노인 환자의 의치 만족도와 연구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상태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 보건 관리로써, 특히 보건 교육 및 정기적 구강 검진 실시 등의 의료 서비스가 원활치 못한 읍·면 지역 노인들과 소외 계

층이 될 수 있는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강 검진 및 순회 진료, 무료 의치 사업 등의 확대 실시와 재정적 뒷받침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들의 의치 장착 만족도 및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대전, 군산, 무주 및 진안 지역 보건소에 내원한 노인 환자 및 무료 의치 사업에 해당되는 노인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무치악 기간에서는 60대는 1~6년이 26.0%, 70, 80대는 7년 이상이 각각 26.1%, 56.0%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른 무치악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P<0.05).
의치를 사용해온 기간에서는 여성이 11년 이상 41.9%, 남성은 6년 미만인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11년 이상이 57.5%,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1년 이상 6년 미만이 각각 63.6%, 광역시 47.6%로 나타났다(P<0.05).
2. 의치 장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광역시 거주 노인들의 만족도가 61.3%로 읍·면 50.8%, 중·소도시 3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3. 저작 및 발음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광역시, 읍·면 지역의 저작 만족도가 평균 2.74%,

3.10%으로 중소도시 1.09% 보다 높았으며 의치 장착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P<0.05).

4. 의치로 인한 식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여성이 착용하기 싫으며 새로운 의치를 착용하고 싶다가 25.6%로 새로운 의치를 착용하고 싶다 남성 2.8%에 비해 불편감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5. 의치 장착 후 본인 삶의 변화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광역시 노인들의 만족율이 64.5%로 읍·면 27.0%, 중소도시 16.7%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참 고 문 헌

Appleby RC, Ludwig TF. Patient evaluation for complete denture therapy. J Prosthet Dent, 24:11-7, 1970.

Bates JF, Murphy WM. A survey of an edentulous population. Br Dent J, 124:116-21, 1968.

Beserin VE, Schiesser FJ. The neutral zone in complete dentures. St Louis Ocv Mosby Co, 1-15, 1973.

Boucher CO, Hidkey JC, Zarb GA. Prosthodontics treatment for edentulous patients. 7th ed. St. Louis. The C V Mosby Co, 66-84, 1975.

Brill N, Tryde G, Schubeler S. The role of learning in denture retention. J Prosthet Dent, 10, 468-75, 1960.

- Carlsson GE, Otterland A, Wenstorm A. Patient factors in appreciation of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322-8, 1967.
- Choi DG. Esthetics and functional harmony of complete denture. *J Korean Dent Associ*, 33:490-493, 1995.
- Dorey JL. Oral mucosal disorders in denture wearers. *J Prosthet Dent*, 53:210-213, 1985.
- Einar B. The influence of some an amnestic,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on patient acceptance of new complete dentures. *Acta Odontol Scand*, 42: 119-27, 1984.
- Gordon SR. Measurement of oral status and treatment need among subjects with dental prostheses: Are the measures less reliable than the prostheses? part I: Oral status in removable prosthodontics. *J prosthet Dent*, 65:664, 1991.
- Grabowski M, Bertram U. Oral health status and need of dental treatment in elderly Danish population. *Community Dent Oral-Epidemiol*, 3:108-14, 1975.
- Guckes AD, Smith DE, Swoope OC. Counseling and related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dentures. *J Prosthet Dent*, 39:259-67, 1987.
- Heyink JW, Heezen JH, Schaub RMH. Dentist and patient appraisal of complete dentures in a Dutch elderly population.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4: 323-6, 1986.
- Kim DL. Social impact assessment. Korean irrigation on funded by U.S.A. Korean Rural Economics Institute, 1980.
- Kim HW et al. A clinical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omplete denture patients. *J Korean Accademy of Prosthet* 33(3), 6:440-451, 1995.
- Kim MO. The study of alienation & physical aging in the old peopl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 1986.
- Kim SS.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EW Publ, 1981.
- Langer A, Michman J, Seifert I.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in geriatric patients. *J Posthet Dent*, 11:1019-31, 1969.
- Lee HO. A study on the dietary intake and health of aged person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 1985.
- Magnuson T. Clinical judgement and patient's evaluation of complete dentures five years after treatment. A follow-up study. *Swed Dent J*, 10:29-35, 1986.
- Makila E. Primary oral status and adaptation to complete dentures. A clinical follow-up study in group over and under 65years. *Ann Acad Sci Fenn(Med)*, 164, 1974.
- Manderson RD, Ettinger RL. Dental statu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opulation of Edinburgh.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o*, 3:100-7, 1975.
- Massler M. Oral manifestations during the

- female clinateric. Oral Surg Oral Med & Oral Path, 4:1234-1243, 1951.
- McCartney JE. Prosthetic problems resulting from facial and intraoral changes in the edentulous patient. J Dent, 9:71-83, 1981.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71~'97 Life table for Korean, 1999.
- Northeim PW, Valderhag J. Distribution and evaluation of complete dentures in a population in Northern Norway. J Oral Rehabil, 257-66, 1979.
- Petrovic A. Speech sound distortions caused by changes in complete denture morphology. J Oral Rehabil, 12:69-77, 1975.
- Seifert I, Langer A, Michman J. Evaluation of psychologic factors in geriatric denture patients. J Prosthet Dent, 12:516-213, 1962.
- Sheppard et al. Survey of the oral status of complete denture patients. J Prosthet Dent, 28:121-26, 1972.
- Silverman S. Self-image and its relation to denture acceptance. J Prosthet Dent, 35:131-41, 1976.
- Tanaka H. Speech patterns of edentulous patients and morphology of palate in relation to phonetics. J Prosthet Dent, 29:16-23, 1973.
- Wass VM. The influence of clinical variables on patient's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63:307-10, 1990.
- Yoshizumi DT. An evaluation of factors pertinent to the success of complete denture service. J Prosthet Dent, 14: 866-78, 1964.